

그리스의 도시문명



강사: **유재원** 교수

서울대학교 언어학과를 졸업하고, 그리스 아테네 대학교 언어학 박사과 그리스 테살로니키 대학교 그리스학 명예박사를 받았다. 현재 한국외국어대학교 그리스·불가리아학과 명예교수이며, 한국-그리스 협회 명예 회장으로 있다. 서울예술대학교 재단 이사, 한국 마이크로소프트 자연어 처리 전문위원 등으로 활동했다. 저역서로 『유재원 교수의 그리스 신화 1: 올림포스의 신들』, 『유재원 교수의 그리스 신화 2: 영웅들 이야기』, 『신화로 읽는 영화, 영화로 읽는 신화』, 『그리스: 유재원 교수의 그리스, 그리스 신화』, 그리스 원문을 번역한 『그리스인 조르바』, 『그리스 민담』 등이 있다.

문명을 가리키는 영어 낱말 civilization은 도시를 가리키는 라틴어 낱말 civitas에서 온 말이다. 즉 문명(文明)은 자연 그대로의 원시적 생활에 대립되는 말로 고도로 발달한 물질적, 기술적, 사회 구조적의 결정체인 도시 안에 사는 “시민들(civis)”의 예의 바르고 교양 있는 세련된 삶의 양태를 뜻한다. 문명이란 낱말이 지금 우리가 생각하는 개념으로 쓰긴 것은 18세기 이후로 그리 오래되지 않았다. 인류 역사 전체로 보면 갓 생겨난 개념인 셈이다.

이 강의에서는 그리스의 독특한 도시 형태인 “폴리스(polis)”의 형성과 발전 과정을 역사적으로 살펴본 뒤, 이를 바탕으로 그리스 문명의 독특한 특성인 인간중심주의(humanism)와 그로부터 형성되어 나온 “개인, 인권, 자유, 평등, 정의, 평화”와 같은 개념들을 파토스(pathos), 에토스(ethos), 로고스(logos) 사이의 관계로 밝혀 보려 한다.